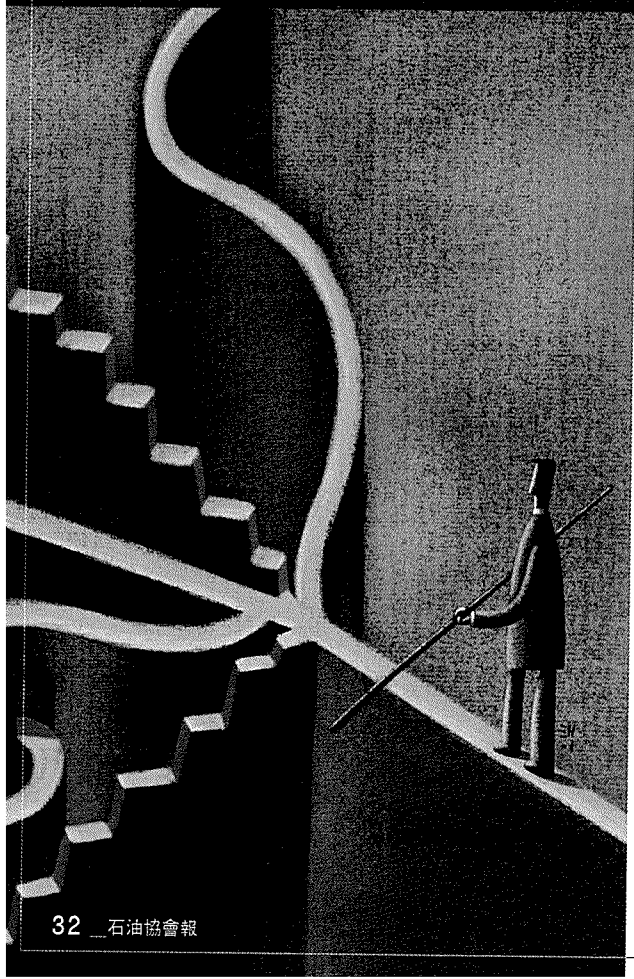


최근 국제석유시장의 혼돈과 갈등

- 이라크사태를 중심으로 -

글 · 장 기 덕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미 국 부시 대통령은 금년 1월말 의회에서 이라크를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대 테러전쟁의 목표로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라크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석유시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제유가에는 3~5\$/bbl 정도의 전쟁 프리미엄이 반영되면서 유가는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 10월 예멘에서 발생한 프랑스 유조선 랭부르호의 피격 사건,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나이트클럽 폭파사건 등 알 카에다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테러사태가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최근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증대와 연계하여 국제석유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랭부르호 피격 후 국제해양국은 세계 각국의 유조선들에게 폭탄공격 경계령을 발효하고 특히 중동지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근을 향해하는 유조선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환기시켰다. 향후 테러사태가 말레카 해협등 주요 석유수송로 및 관련시설등으로 확산될 경우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편승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를 국제석유시장에 몰고 오지나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최근 국제석유시장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라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당분간 국제석유시장에 계속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석유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라크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 관계

최근 미국의회는 부시행정부에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 에너지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등 정치·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력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대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에 대해서 프랑스·러시아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라크 공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라크 문제해결에 대한 강대국들간의 확연한 시각 차이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대 테러전쟁이라는 외형적인 명분도 있지만, 반면 사담 후세인정권 교체를 통한 친미정권을 수립하여 석유자원의 보고인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석유공급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키위한 에너지전략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내 에너지가격의 강세, 석유수입 의존도 심화에 따라 향후 에너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책의 기본전략은 대내적으로 “중동의존도 축소”를 위한 자국내 에너지 공급능력의 확대와 대외적으로 에너지안보문제를 무역 및 외교정책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에너지안보 정책은 전세계 석유산업 전반 외에도 국가간 역학관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의 미국과 이라크간의 관계, 사우디와 미국간의 갈등, 카스피해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협조체제 강화등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이라크의 석유산업은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영향권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성공하여 친미정권이 들어설 경우 시장 주도권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프랑스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라크 문제를 UN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UN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제고 및 이라크 석유산업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이라크와 미국 사이에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금년 5월 미국과 “에너지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수입 확대, 미국 석유기업의 러시아 투자 보장, 중앙아시아지역 합작 진출 확대등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 에너지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등 정치·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미국 석유회사들의 이라크 투자를 금지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이라크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이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이 물러나고 친미정권이 수립될 경우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고 이라크에 대한 진출도 재개가 될 것이므로 이 경우, 프랑스와 러시아는 그간 이라크내에서 쌓아올린 기존의 석유이권 유지에 커다란 곤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석유를 활용한 이라크의 대응전략

이라크는 대내적 역량 결집을 위하여 후세인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10월 15일 실시하여 100% 찬

성률을 보였으며, 미국과의 전쟁 기피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즉 UN에 의한 무기사찰 무조건적 수용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의심스러운 지역에 미국이 직접 무기 사찰을 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또한 프랑스, 러시아 등 UN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외에도 풍부한 석유자원을 활용한 대응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이라크는 프랑스의 TotalFinaElf사, Tatneft사, 이탈리아의 ENI사, 스페인의 Repsol YPF사등 유럽계 석유회사들과의 원유판매 직거래를 추진하여 왔다. 그간 이라크는 미국 메이저 석유회사들과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주로 중소규모의 국제트레이딩 회사들과 거래를 해왔었다. 또한 석유수출 부진을 만회하고 유럽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 구매업자들에게 부과하던 불법적인 프리미엄을 삭제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현재 이라크에 진출한 국제석유회사들은 총 200억 배럴에 해당하는 500억배럴의 매장량 (400만b/d 생산) 규모의 석유개발 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프랑스의 TotalFinaElf사가 130~270억배럴, 러시아의 Lukos 및 Zarubezhneft사등이 75~150억배럴, 중국의 CNPC가 20억배럴 등을 차지하는 등 프랑스,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석유수출 증대를 통하여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금년도 이라크 석유수출은 UN과의 가격결정방식을 둘러싼 갈등,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으로 트레이더들이 구매를 기피하여 크게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밀수출 포함하여 200만b/d에 달하였던 석유수출은 2002년 8월 78만b/d를 저점으로 9월 110만b/d, 10월

160~170만b/d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0월 3주에는 지난 1996년 UN이 이라크 석유수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인 303만b/d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간의 밀월은 유지되는가?

이슬람 형제국인 이라크를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대부분 아랍 국가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아랍권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라크 문제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일종의 패권주의로 인식하여 반미감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랍권에서도 정권이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쿠웨이트, 사우디등은 그간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60여년간 동맹관계를 형성해 온 미국과 사우디는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과 관련하여 갈등 관계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간 미국은 이란, 이라크 등 주변 군사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사력을 보유한 사우디에게 정치적, 군사적 안보를 보장해 주면서 사우디의 OPEC내 영향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정책을 추구하여왔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수입국으로서 적정 수준에서의 유가안정을 선호하고, 사우디도 세계 최대의 원유매장량 보유국으로 고유가에 의존한 단기적 수익확대 보다는 시장점유율과 적정유가를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이해관계 일치는 국제석유시장 안정 구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국제석유시장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9.11 테러사태 납치범 19명 중 15명이 사우디인으로 판명된 이후, 미국의 대 테러

사우디내 반미감정의 고조와 현정권에 대한 불안감등으로 인해 기존 사우디 정책의 부분적인 전환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라크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사우디가 대체 증산등 적극적인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지 않고 대미 압박을 위해 고유가를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전 수행과 관련하여 사우디의 협조가 소극적인 것에 대해 미국내에서 불만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미국 국방전문연구소인 랜드코퍼레이션은 사우디를 “악의 핵”이라고 칭하고 유사시 사우디의 금융자산과 유전을 몰수할 것을 주장하는 초 강경보고서를 작성, 국방부에 브리핑함으로써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맞서 사우디의 친정부 일간지인 일-리야드는 8월, 사우디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뒤를 이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사우디가 미국에 투자한 자금을 잇달아 회수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미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반면 사우디내에서도 자국내 부패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일방적인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 이라크 공격에 대한 지지 강요, 걸프전 후 미군의 주둔, 9.11테러와 관련 미국희생자들의 가족들이 1조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등에 따라 반미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사우디도 과거 걸프전과는 달리 미국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물론 양국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동맹관계를 해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기존전략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사우디내 반미감정의 고조와 현정권에 대한 불안감등으로 인해 기존 사우디 정책의 부분적인 전환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라크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사우디가 대체 증산등 적극적인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지 않고 대미 압박을 위해 고유가를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우디와 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미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강경 일변도로 흐르던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이 최근에는 이라크 정권교체보다는 무장해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견해가 표명되는등 다소 유화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10월말부터 국제유가는 약세로 전환되었다. 그간 유가에 반영되었던 전쟁 프리미엄이 축소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국제석유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어 동 사태의 진전상황에 따라 국제유가는 또다시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라크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유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무기사찰을 수용하는 것이지만, UN 안보리의 결의 및 이라크가 새로운 결의안을 수용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제시한 수정 결의안에 대해서도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간 진통이 계속됨에 따라 UN의 결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절충안 수용과 이라크에 대한 무장해제가 성공할 경우 국제석유시장의 긴장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유가에 반영되었던 전쟁 프리미엄이 다소 완화되어 국제유가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공격을 위하여 현재 명분과 절차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UN의 결의안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가시화 될 경우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걸프전 사례를 보듯이 단기간내 전쟁이 진정될 경우 석유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공격이 UN 결의하에 이루어질 경우보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공격할 경우 정치적인 요인들에 의해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 ☹